

구광모 “변곡점에 선 지금, 기존 성공 방식부터 바꿔야”

〈LG그룹 회장〉

**LG, 국내외 구성원 대상 신년사
기술·경쟁·고객·조직 환경변화 진단
급변하는 패러다임 속 기존방식 지적
“지금은 선택과 집중 혁신 필요”**

“변곡점에 선 지금, 10년후 고객을 미소 짓게 할 가치는 혁신으로 이끌어야”
지난 2019년 신년사에서 고객이 LG가 나아가갈 핵심 방향임을 강조했던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객가치 경영 메시지를 다시 전하며 진화·발전 시킬 것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22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LG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꿈꾸고 이를 현실로 만들며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노력 못지않게 세상의 변화도 더 빨라지고 있다”고



구광모 (주)LG 대표.

말했다. 기술의 패러다임과 경쟁의 룰이 바뀌는 상황에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새로운 혁신으로 도약할 것을 주문한 것

이다.

LG는 구성원들이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22년 신년사부터 연초가 아닌 연말에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구 회장은 국내외 LG 구성원들에게 ‘000님, 안녕하세요. 구광모입니다. (Hello, this is Kwang Mo Koo)’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신년사 영상을 전달했다.

구 회장은 “혁신은 오늘의 고객 삶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미래 고객에게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선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변해야 하며 ‘선택과 집중’이 그 시작”이라고 했다.

그는 “먼저 고객의 마음에 닿을 하나의 핵심 가치를 선택해야 한다”며 “하나의 핵심 가치를 명확히 할 때 비로소 혁신

의 방향성을 세우고 힘을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한 그곳에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수준까지 파고 들어야 한다”며 “그 치열한 집중이 고객이 ‘정말 다르다’고 느끼는 경험을 만들고 세상의 눈높이를 바꾸는 탁월한 가치를 완성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변곡점에 서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자 기회”라며 “10년 후 고객을 미소 짓게 할 가치를 선택하고 여기에 우리의 오늘을 온전히 집중하는 혁신이야말로 LG가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 신년사에서 ‘고객’을 LG가 나아가갈 핵심 방향임을 강조한 후 지속적으로 고객가치를 강조했다. 2020년에는 고객 페인

포인트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고, 2021년에는 고객 초세분화를 통해 고객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2022년에는 한 번 경험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치 있는 고객경험을, 2023년은 ‘내가 만드는 고객가치’를 화두로 제시하며, 모든 구성원이 LG의 주인공이 되어 고객 감동을 키워가자고 했다.

2024년은 LG가 시장을 주도하는 최고의 고객경험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차별적 고객가치에 대한 몰입’을 강조했다. 2025년에는 LG의 창업 초기 첫날부터 이어 온 ‘도전과 변화의 DNA’로 미래의 고객에게 꼭 필요하고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드리자고 강조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김지형 “중단된 사회적 대화, 국민 참여 공론화 방식으로 재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경사노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사회적 대화 운영 구상 등 밝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단된 사회적 대화를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형태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단순히 대화를 재개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재개라는 표현보다 재구조화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노동계와 경영

계 주요 단체, 원로, 학계, 전문가 등을 두루 만나 의견을 들었으며 경사노위의 역할 자체를 다시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노사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설계를 위한 사회적 공론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갈등 조정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중대하다고 여기는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풀기 위해 각 주체가 어떤 역할과 책무를 질 것인지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통상질서 재편 등 복합 전환 위기를 언급하며 “이해당사자뿐 아

니라 국민 모두의 지혜가 반영되는 참여 민주주의 방식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경사노위 운영의 핵심으로 통섭형 의제 발굴과 공론화 절차 강화를 제시했다. 기존 노동관계 현안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회적 과제를 폭넓게 다루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년연장, 청년취업 같은 문제도 단편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 생애 주기의 계속고용과 소득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며 “있는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아니라, 새로운 파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대화를 열고 싶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공론조사, 타운홀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다양한 시민 참여 방식과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공론화 기법을 활용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청년, 고령층 등 미조직 이해당사자 참여 폭도 넓히겠다고 했다.

사회적 대화의 출발 조건으로 민주노총의 참여를 전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참여 시점이 불투명한 것도 현실”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대화를 멈춰 둘 수는 없다. 현재 참여 가능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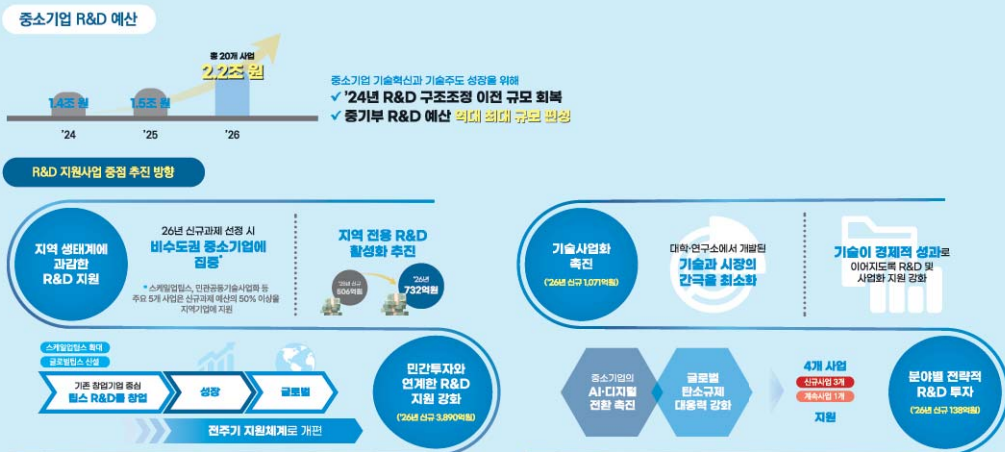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민주노총 참여의 모멘텀도 커질 것”이라며 “배제한 채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경사노위가 ‘합의 도출’에 과도하게 매몰돼 왔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운영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자체에만 매달리다 보니 결렬되거나 정책·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결론을 조금급하게 정해두기보다 충분한 숙의와 논의가 우선되는 구조로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2026년 중기부-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기부 '26년 R&D예산 현황 · 주요투자 분야



산업부 '26년 R&D예산 현황 · 주요투자 분야



공고 세부 내용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s://www.mss.go.kr>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 <https://www.motir.go.kr/>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지원

